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248 회색과 시대

그리스도, 순례자들 모두 회색 옷 입어

●색채와 종교 그리고 연령

서기 1000년경 수도회의 색이 확정되었는데, 회색과 갈색은 청빈을 요구하는 수도회의 색이 되었다. 회색 수도복을 입은 시토(Cistercian, 1098년에 설립된 로마 가톨릭 수도회를 말함) 교단의 수도사들은 교회의 장식에 유채색을 사용하지 않는다. 교회의 창문 장식에도 유채색이 없다. 그들은 유채색의 광선이 경건한 마음을 흐트린다고 생각하여 교회의 벽과 창문 그리고 장식까지 모두 회색만을 사용하였다.

청빈은 수도회마다 다르게 해석되지만 '높은 청빈', '더 높은 청빈', '최상의 청빈'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높은 청빈'은 수도회에 모든 종류의 소유를 허락한다. 두 번째, '더 높은 청빈'은 부동산은 허락하지 않고 동산만 허락했다. 세 번째, '최상의 청빈'은 모든 종류의 소유를 금했다. 이 수도회는 카푸친(Capuchin) 수도회와 시토수도회이며, 회색 수도복을 입는다.

그리스도가 입었던 옷은 회색이다. 순례자들도 회색 옷을 입었다.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좁고 험한 길'도 회색이다.

노년기에는 약한 채도의 작

은 대비로, 회색이나 검정 그리고 갈색이 나타난다. 회색은 힘이 없는 색이며, 미화되지 않은 노령 그 자체의 색이다. 서양의 경우 회색은 노년을 연상시킨다.

모세는 "회색 머리 앞에서 일어나 노인을 공경하라"고 명령했다.

회색은 '경험 많은', '존경할 만한', '현명함'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울적한 상태에 빠진 우울병 환자가 그리는 그림에는 검정, 회색, 다갈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알슐러(Alschuler)는 해트윅(Hattwick)과 함께 쓴 저서인 그림과 개성(Painting and personality), University of Chicago, 1947.)에서 유아 3세부터 5세까지 색채표현의 즐거움과 정서적인 경향을 제시하였다. 검정과 갈색 그리고 회색을 사용하는 아이들은 어떤 내적 고민거리를 표출하는 것으로 보았다. 회색뿐인 유아의 그림은 정서적 결핍이나 인간관계가 나쁜 것으로 해석된다.

●색채와 문장

문장(紋章)에서 은색은 겸손, 정직, 순수, 순결을 상징하며, 방패에 그려 넣은 달의 문장에도 은색이 사용된다.

문장의 색이 깃발의 색으로 변

할 때 은색은 하양이 되며, 은색의 상징은 평화의 색이 된다.

●독일

'그리조이스(griseus)'는 독일 북부지방의 고어로 '회색'을 뜻함과 동시에 '사소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이다. 특히 회색 옷은 갈색 옷과 같이 염색하지 않은 직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황제 카를대제(Karl der Grosse)의 연대기에서는 농부에게 회색 옷을 권했다. 동화 속의 공주 신데렐라(Cinderella)는 회색 옷을 입었으며, 그녀의 삶도 회색이었다.

회색에서 나온 독일 이름으로는 '신디(Cindy)', '젤다(Zelda)', '그리젤디스(Griseldis)'도 신데렐라에서 유래한 여자 이름이다. 회색 이름들은 비참한 삶을 강요하는 빈곤과 겸손을 상징한다.

1999년에 제작된 전화번호부를 참고로, 독일에서 사용한 색이름이 성으로 사용한 예이다. 회색(그라우 Grau)은 4056개였고, 은색(질버 Silber)은 501개였다.



문화예술 기획자/ 철학박사·미학전공

또 한 번 속는 셈치고 거는 기대



취재수첩

김은지

취재1부 기자

eunji.kim@jnilbo.com

제22대 국회 개원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 대장정'을 끝낸 당선인들은 후련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다.

광주에서는 8개 지역구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당선됐고, 이 중 7개 지역구에서는 '정치 신인'이 현역 의원들을 제치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현역 물갈이가 두드러졌던 배경에는 '본질적인 역할'에 대한 실망이 있었다. 대다수의 현역 의원들은 각 지역구를 중심으로 국민을 대변해 '입법'에 집중해야 한다는 본질적 역할에 집중하기보다는 중앙정치에 가담해 정치싸움에만 치중된 모습을 보였다.

물론 경선 과정에서의 내용도 컸지만 우여곡절 끝에 선거는 끝났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300명의 일꾼들이 이제 여의도로 향한다.

아직 개원조차 하지 않은 22대 국회이지만,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당장 21

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지역 현안만 하더라도 산더미다.

22대 국회 임기인 4년 안에 이미 밀려 있는 과제들과 개개인의 공약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 거대한 힘을 얻은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 4월10일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이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일하는 국회'의 모습으로 현안의 심층적인 파악을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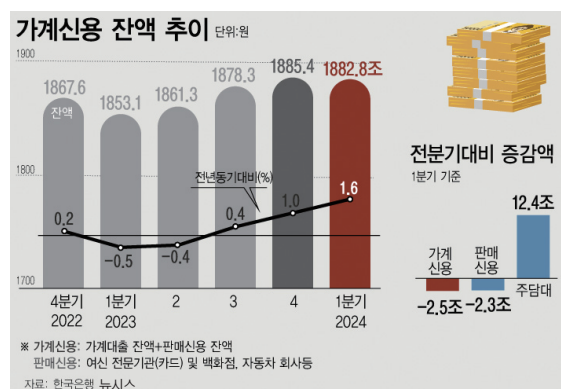
중국 속담에 '앞수레의 얹어진 바퀴 자국은 뒷수레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의 실패를 본보기로 해 뒷사람이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조심함을 이르는 말이다.

4년 뒤 총선에서 또 한 번의 '현역 물갈이'가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선인 각자가 '본질적인 역할'을 망각하지 않고, 다양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취합해 최선의 '운도'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느 때의 선거처럼 이번 총선에서도 '이번엔 그래도 다르겠지'라는 마음으로 지지하는 후보와 당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던 유권자들의 손끝에는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절실한 마음이 녹아있었을 테다.

부디 그 간절한 바람이 이번만큼은 '실망감'으로 돌아오질 않길 또 한 번 속는 셈치고 기대를 걸어본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독자투고

마약,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약을 투약한 채 서울 강남 길거리 한 복판에서 소리를 지르던 여성과 헛소리 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함께 마약을 투여 후 환각 상태로 길거리에 뛰쳐나와 여러 번 "살려 달라"고 외치다 경찰에 신고됐다. 이처럼 최근 마약 관련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의 '마약사범 현황' 집계에 따르면 2018년~2022년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5만3740명 중 52%에 해당하는 2만7957명이 재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습성이 가장 강한 절도나 강도도 20% 가량인 점을 비춰보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실형을 살고 나와도 재투약을 생각할 정도로 마약은 중독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애초에 재활을 통해 예방하거나 호기심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재범률이 높은 것을 참작해서 사법

기관에서는 초범이라도 선처 없이 징역형 등의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또한 재범이 아니더라도 상습 투약이 인정된다면 가중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마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경찰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험 요소를 지역 사회 주민들이 찾거나 신고, 제보를 통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리소문없이 퍼져나가는 마약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허예원 <곡성경찰서>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